

서울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소

공장 및 연구소에만 집중돼 있던 수소충전소가 도심에 설치됐다.

서초구는 10월10일 현대기아자동차와 협력해 이동식 Off-site형 수소충전소를 염곡동에 설치 및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.



새로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243Nm³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수소자동차 시내 시험주행 실증테스트 및 수소자동차 도심 적용 모니터링을 위해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.

구청 관계자는 “기존 수소충전소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어 도심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하는데 한계로 작용했지만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수소자동차 모니터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”고 전했다.

아울러 서초구와 현대자동차 측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해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.

시장 관계자는 “현재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부지에 Off-site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”며 “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과도기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역할도 내재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

국내 수소충전소는 총 7곳이 있으며 Off-site형 충전소는 현대자동차 마북과 남양 소재 2곳과 SPG케미칼의 여수 소재 충전소가 있다. <이명주 기자>

<화학저널 2009/12/14>